

	문화재청 50년,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報道資料 [2011.09.22.]	보도시점	배포 즉시	
	담당부서 (전화번호)	정책총괄과 (042-481-4811/4814)	
	담당자 (e-mail)	박동석(gkpds1@ocp.go.kr) 임미정(lim74@nricp.go.kr)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국가유산종합정보서비스(www.heritage.go.kr)」에 동시게재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특별전 열어

-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문화재청 발족 50돌을 기념하기 위해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란 주제로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 동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삶과 함께 호흡해 온 우리 문화재와 문화재청의 다양한 활동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해야 할 일과 미래상을 첨단기술 및 영상매체를 통해 전달한다.

전시는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문화재청 50년 동안 발자취 ② 문화재 탄생-발굴 ③ 문화재의 새로운 시작-보존 ④ 문화재의 새로운 시작-복원 ⑤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 ⑥ 문화재와 우리 ⑦ 문화재의 진화-디지털 문화재로 이어진다.

전시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큐알코드를 통해 제공하고 관람자 자신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큐알코드를 스캐닝 하면 해당 전시물의 정보가 수록된 블로그 및 웹페이지가 연동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하여 배경과 액자를 선택하고 메시지를 입력해서 꾸민 후 메일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했고, 터치스크린으로 관람객이 직접 작성한 글과 기념사진이 전자앨범으로 남아 방명록으로 활용하게 하는 디지털 방명록이 구비되어 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문화재청 5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고리를 큰 틀로 구성하여 문화재 업무의 광역성과 다양성을 펼쳐 보이고, 전시 주제에 부응하는 문화재 관련 유물을 함께 전시하여 하이테크-하이터치라는 사회적 추세에 부응하고, 보다 많은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문화재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서 문화재의 사회적 기능을 적극 수행하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며 세계일류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1. 대표 전시유물 목록 및 관련사진 1부.

2. 부문별 구성 내역 1부. 끝.

【붙임1】

대표 전시유물 목록

연번	문화재 명칭	내 용
1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비지정)	○ 2009년 1월14일 1층 해체조사를 진행하던 중 심주석 상면 중앙에서 사리공이 발견되었다.사리공 주변에는 십자(十字) 먹선과 석회로 밀봉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사리장엄은 사리공 안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사리호, 금제사리봉영기, 은제관식, 청동합 등 다양한 공양품이 일괄로 출토되었다.
2	시집가는 날 (등록문화재 제348호)	○ 1956년에 오영진의 희곡 『맹진사댁 경사』를 영화화하여 동아영화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이병일 감독의 작품이다.당시에는 다소 낮은 장르였던 코미디 영화였지만 최초로 해외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아시아영화제 특별희극상)이라는 사실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는 당시 선진 영화계에 깊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영화인들에게 큰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3	엄복동 자전거 (등록문화재 제466호)	○ 엄복동은 1910년 전조선자전거대회에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한 이후 1929년 은퇴할 때까지 수많은 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월등한 기량을 펼치며 일본선수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 자전거는 영국 러위社(Rudge-Whitworth)의 제품으로 엄복동 선수가 사용하다 후배 선수에게 물려준 것을 양도받은 박성렬 선수는 한국전쟁 때 이 자전거를 돌려메고 피난하였다고 한다.
4	은제 이화문 탕기 (등록문화재 제452호)	○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한 탕기(湯器)로 표면을 망치로 두드린 단조(鍛造)기법으로 제작되었다. 덮개와 몸체 중앙에 대한제국 황실의 문장인 오얏꽃(李花)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덮개에 ‘만수무강(萬壽無疆)’ 문자가 양각으로 감입(嵌入)되어 있다.
5	은제 이화문 화병 (등록문화재 453호)	○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목이 길고 몸통이 부른 형태에 긴 목의 양쪽에 두 개의 귀가 달린 의례용기(儀禮用器) 형태의 화병이다. 주석의 함금율이 높아 표면광택이 밝은 것이 특징이다.
6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 (등록문화재 468호)	○ 순헌황귀비 엄씨가 1906년 5월 설립한 명신여학교(明新女學校)의 설립 초기 교사 자료인 태극기, 현판, 완문 3점의 유물로 교육사적 가치가 큰 유물이다.
7	청자상감매병, 청자음각매병 (비지정)	○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靑磁陰刻蓮花折枝文梅瓶)” 유색=청자(靑磁)/무늬를 새긴 방법=음각(陰刻)/무늬종류=연꽃과 잎(蓮花折枝文)/그릇종류=매병(梅瓶) “푸른 빛의 청자로, 연꽃과 잎 무늬를 새겨 넣은 매병” ○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靑磁象嵌菊花牡丹柳蘆竹文梅瓶)” “푸른빛의 청자로, 국화, 모란, 버드나무, 갈대, 대나무를 상감으로 새겨 넣은 매병”
8	포항 중성리신라비 (비지정)	○ 포항 중성리신라비는 흑운모화강암으로 표면의 많은 부분에 검은색 오염물질(주성분은 망간 등)이 붙어 있어 약간 검은색의 기미가 있다. 글자는 면을 약간 치석하여 새긴 앞면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비의 하단부 약 20cm정도 폭으로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는 비를 다른 곳에 끼워 세우기 위한 부분으로 추정된다.

사 진 자 료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출토 '청동합'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



청자음각연화절지문매병



포항 중성리신라비

【붙임2】

부문별 구성 내역

제1부문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일어났던 일 중에서 2008년 2월 10일 발생한 승례문 화재사건 등과 같은 100대 뉴스를 국보·보물 지정, 건조물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세계유산, 조선조 궁·능·원 관리, 국외 문화재 환수 등 13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하여 그 의미를 되새긴다.

제2부문에서는

문화재 발굴 50년의 역사 중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미륵사지, 무령왕릉, 신안 해저와 마도2호에 대한 발굴이야기와 700년여 만에 꽃을 피운 고려시대 함안 연꽃, 창녕 송현동 제15호 고분의 가야소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전시유물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일체 중 지금까지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유물을 추가로 공개하고, 고려시대 침몰선 마도 2호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중 꿀단지 그리고 최초로 선보이는 참기름 단지와 이의 명문이 새겨진 죽간이 전시된다. 함안 연꽃과 씨앗, 재현한 가야소녀는 서울나들이가 처음이다.

제3부문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와 등록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우리나라 국토 동쪽 제일 끝인 독도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여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외에 알리고 독도의 모습을 실시간 위성 영상으로 보여준다. 자연고고유물로서 천연기념물 뜸부기 등 조류와 하늘다람쥐 박제품, 신생대 공룡뼈와 알둥지·매미날개·바퀴벌레·너도밤나무 잎 등 희귀한 고생물 화석 등이 흥미를 유발한다.

특히 미래의 보물인 등록문화재로서 1913년 「전조선자전차경기대회」를 석권해 일본의 자존심을 꺾었던 “엄복동(1892~1951) 자전거”(제446호)가 전시되어 있다. 그 외 순헌황귀비 엄씨가 설립한 명신여학교 설립초기 교사 자료인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제468호),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서 “은제 이화문 탕기”(제452호)와 “은제 이화문 화병”(제453호)이 전시되고 아시아영화제 특별 희극상을 받은 “시집 가는 날(일명 : 맹진사댁 경사)”(제348호)은 영상으로 보여준다.

제4부문에서는

일제에 의해 훼손되었던 조선시대 범궁인 경복궁 복원, 방화로 훼손된 숭례문 복원을 비롯해 우리나라 4대 고도(古都 ; 경주·공주·부여·익산)의 보존 및 육성사업을 통해 문화재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원형 보존에 애쓰는 모습을 소개한다. 이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70년대 경주고도 육성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내용이 실린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1971년)」 보고서가 전시된다.

제5부문에서는

우리 민족이 만든 문화재 중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세계유산 현황을 보여준다. 경복궁 자선당·북관대첩비·조선왕조실록·일본 궁내청 도서 등 국외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 찾아오기, 러시아·캄보디아·베트남 등 문화재 분야 정부 공적원조 사업이 소개된다. 북한 천연기념물 영상과 최초 남·북한 합동 발굴한 만월대의 3D영상도 볼 수 있다.

제6부문에서는

문화재 보존과 개발이란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공유하기 위해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 285호)’와 ‘사연댐’ 관계를 통해 조명해 보고 각자의 생각을 남긴다.

그리고 ‘쭈꾸미가 건져 올린 고려청자’와 ‘포항 중성리 신라비’를 통해 국민참여 문화재보호 콜센터와 포상금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를 공지한다.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서울에서 처음 공개된다.

제7부문에서는

4G시대 문화재 소비형태에 맞게 우리나라 문화재 가치를 영상 콘텐츠로 국민에게 살갑게 전달하는 헤리티지 채널을 알리고, 앞으로 최첨단 IT기술과 아날로그 문화재가 융·복합되어 디지털문화재로 다시 태어나 문화재 향유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디지털 문화재는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등 3점의 회화문화재(현대미술 작가 이이남 제공)가 컴퓨터그래픽으로 처리된 디지털 액자에서 생동감 있게 재 표현되고, 석굴암·팔만대장경·승무가 3D로, 백제 정림사(백제문화제조직위원회 제공)와 고구려 덕흥리 고분벽화·고구려 강서대묘 고분벽화(동북아 역사재단 제공)의 VR(가상현실)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더불어 향후 세종시에 건립될 「디지털 문화재 영상관」 구상안도 미리 경험할 수 있다.